

# “프로야구 팬들 비난 당연... 반성하자”

일구회, 선수 행동에 ‘일침’  
“은퇴 선수 대표해 사과드린다”

프로야구 OB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윤동균)가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일한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일구회는 11일 프로야구계와 선수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근 프로야구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잇따른 음주 추문과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둬 팬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다. 일구회는 “한국 프로야구가 한국 최고의 프로스포츠가 된 데는 구성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팬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 관심과 사랑에 부응하지 않고 팬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소양의 부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천만관중의 시대를 열며 양적 성장은 이렇지만 팬을 대하는 태도나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공헌 등 질적 성장은 더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언행을 한 현역 선수만의 문제가 아닌 야구 선배들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 은퇴 선수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구회는 “이런 사건·사고를 일으킨 선수들의 잘못에 대해 팬의 질타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야구 선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로부터 자유롭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고 했다.

선배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구회는 “볼이켜보면 지금의 야구계 상황은 우리 야구 선배들이 제대로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행하효’라는 옛말이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의미인데, 우리 야구 선배가 맑은 윗물이 되지 못해 아랫물이 흐리게 된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일구회는 “우선 기량 발전 중심의 야구보다는 야구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구를 통해 규정을 지키는 준법정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결력,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주의, 실패를 통한 성장 등 여러



도쿄올림픽을 빛낸 영웅들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1일 대회실에서 공단 스포츠단 소속으로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선전을 펼친 펜싱 김정환, 구분길과 다이빙 우하람을 위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과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환영식에서는 올림픽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관람하고 축하 꽃다발과 격려 포상금 전달 등의 순으로 열렸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러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야구에 갖든 정신을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기술 향상만큼이나 인격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야구 선배인 일구회가 똑바로 섰을 때 한국 야구도 사회와 팬의 눈높이에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며, 팬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국야구가 양적 발전만이 아닌 질적 발전도 이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구회는 “지금까지의 잘못에 반성하며 팬의 사랑에 응답하는 한국야구가 되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나가겠다. 그런 노력을 통해 팬의 성원과 관심이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야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점에 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뉴스1



LX, 사이클 꿈나무 육성 앞장  
강원 양양고서 유망주 교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이클 꿈나무 육성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양양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사이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사이클 유망주 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프로그램은 LX사이클 선수단 지도자·선수가 참여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고교 사이클 선수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훈련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펼쳐졌다.

프로그램에는 아시안게임 5관왕을 달성한 장선재 코치와 2017 아시안도로 챔피언 박상홍 선수, 2012 런던올림픽 단체추발 국가대표 박건우 선수 등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장선재 코치는 “한창 기량이 발전하는 청소년 사이클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이번 유망주 교실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선수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11월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통역 봉사자 지원

태권도진흥재단, 서울대 국제스포츠 행정가 양성사업단과 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 행정가 양성사업단(단장 강준호, 이하 서울대학교)과 11일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1월 태권도원에서 예정된 태권도 국제 대회 통역 봉사자를 지원받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무주 태권도원 2021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이하 ‘그랑프리 챌린지’)의 성공적 진행과 원활한 국제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맺게 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울대학교의 그랑프리 챌린지 통역지원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포함한 학습 및 연구에 필요한 현장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양 기관 사업에 있어 연계가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

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국적 학생들이 민간 외교사절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회 성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며 “대회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유관 기관들과 함께 그랑프리 챌린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무주 태권도원 2021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전북도, 무주군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 홍보, 참가자 모집 등에 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A등급’

태권도진흥재단, 2년 연속 최고 수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에 이어 최고 수준인 A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243개 기관의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에게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방식의 설문을 진행했다.

태권도원을 이용한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등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편익 증진’과 ‘국민 서비스품질 혁신’ 등에 대한 설문에서 각자가 느낀 것을 만족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서비스 품질 항목에서는 91.9점, 고객

만족 항목에서는 91.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는 등 총 90.6점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속한 기타공공기관 127개의 2020년도 평균점수 84.3점에 비해 6.3점 높은 점수로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한 방역 관리와 친절,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해 온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태권도진흥재단은 평가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만족도를 드리기 위해 재단과 자회사 모두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태권도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된 이번 평가 결과에서 태권도진흥재단은 정부 기관경영평가 점수 반영 및 등급 재확인 점검 과정을 거쳐 이날 최고 등급임을 확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